

최재욱 글로벌보건안보대사,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보건 고위급 회기 참석

최재욱 글로벌보건안보대사는 9.18.(월)-9.22.(금)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보건 관련 고위급 행사에 참석하였다.

최 대사는 9.19.(화) 결핵 퇴치 관련 기관인 스탑 티비 파트너십(Stop TB Partnership),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결핵 혁신 서밋 3.0(TB Innovation Summit 3.0)에 참석하여 2023-25년간 글로벌 펀드에 대한 1억 달러 공여 등 우리 정부의 결핵 퇴치 관련 기여를 소개하고, 결핵 문제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.

- ※ 스탑 티비 파트너십(Stop TB Partnership)은 전 세계 결핵 근절을 목표로 2001년 설립(미국 국제개발처(USAID)가 주 후원기관)된 기관으로, 약제, 치료 및 진단기기 보급 등을 실시
- ※ 결핵 혁신 서밋 3.0은 결핵 혁신과 이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, 결핵 혁신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, 금년에는 스탑 티비 파트너십, 외교부,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공동 주최

최 대사는 9.21.(목)에는 글로벌 보건안보 우호그룹 조찬에 참석하여, 글로벌 보건 위기 등을 위해 △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, △글로벌보건안보구상(GHSA,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) 등 기존 협력 체계의 적극적 활용, △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의 보건 체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- ※ 글로벌 보건안보 우호그룹 : 코로나19 팬데믹 계기 우리 주도로 출범한 뉴욕 소재 보건 관련 우호그룹 / 한국, 카타르, 캐나다, 덴마크, 시에라리온이 공동의장국으로 활동

최 대사는 9.21.(목)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하여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기반 보편적 의료보장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점을 설명하고, △보편적 의료보장과 팬데믹 예방·대비·대응 간 연계 필요성, △일차 보건의료 중심의 개발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 보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최 대사의 금번 보건 고위급 행사 참석은 국제 보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, 주요국과의 보건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.

붙임 : 행사 참석 사진. 끝.

담당 부서	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	책임자	국제기구협력관 이 철 (02-2100-7224)
		담당자	사무관 박성호 (02-2100-7260)